"남원의 미래, 역세권에서 시작"

시,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발전 비전선포식 개최

남원시는 10일, 남원역 광장에서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발전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남원의 미래 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남원시는 10일, 남원역 광장에서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남원의 미래 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역세권 개발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 남원 역세권은 지난 8월 7일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 산업 중심의 융복합 산업 허브와 복합환승센터 및 정주·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컴팩트 시티 조성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투자협약기업, 남원시, 남원시의회, 유관기관, 기업인,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원역세권 개발이 지역 산업과 도시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임에 공감했다.

남원시는 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 플라자(FIP) 조성(드론 R&D·실증·비즈니스 쇼케이스) △지역특화산업 플라자(RIP) 조성(스마트농업·바이오 R&D 플랫폼) △어울림 문화거리 조성(체류형 관광·상권 활성화 공간) △복합환승센터 구축(달빛철도·전라선 연계 남부권 교통거점)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산업·생활·관광이 연계된 복합 도시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통해 총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3,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3,2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 중심의 산업전환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청년 정착 기반 마련 및 원도심과의 상생을 포함한 도시 활력 회복 효과가 예상된다.

남원시는 2025년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시작으로 2026년에 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7~2028년에 SPC 설립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 2028~2029년에 FIP·RIP 등 핵심 상부산업시설을 건립하고, 2030년 이후에는 시설 운영과 재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남원역세권 개발은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산업과 문화,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새로운 남원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며, "남원의 미래, 역세권에서의 시작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10월 관광객 역대 최고

129만명 집계… 통계상 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 진기록

임실군의 10월 관광객 수가 통계상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계절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재입증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임실군을 찾은 방문객 수는 12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관광공사 통계가 잡힌 2018년 이후 월 단위 임실군 방문객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에서도 무려 35%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같은 성과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한 '2025 임실N치즈축제'가 전국적인 관광객 유입 효과를 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치즈테마파크에 전시된 국화꽃과 구절초 경관에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의 가을꽃 향연을 보기 위한 수많은 나들이객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며, 관광객 증가를 크게 견인했다.

임실N치즈축제와 치즈테마파크, 옥정호 등 핵심 관광지에 사람이 많이 찾은 데는 집중적인 홍보 효과도 한몫했다.

실제 군은 올해 초 신설된 홍보 전담 부서인 홍보담당관을 중심으로 사계절 축제와 계절별 주요 관광지 등을 신문과 방송, 통신 및 인터넷, 유튜브 등 SNS 4개 채널 등을 활용하여, 철저한 사전 기획에 따른 적재적소의 홍보 마케팅을 전개했다.

오수의견제와 함께하는 임실펫스타가 열린 지난 5월에는 월 방문객 100만명을 일찌감치 돌파한 바 있다.

5월 기록을 깨며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온 10월에는 치즈축제 개최와 가을 관광수요가 맞물리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린 국내 유일의 치즈축제인 '2025 임실N치즈축제'에 61만명이 찾으며 정점을 찍었다.

당시 축제는 큰 성공을 거두며 관광객 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 체계적 준비와 특별한 5일간의 풍성한 콘텐츠 마련해 호평을 받았다.

홍보담당관 중심의 짜임새 있는 전략적 홍보는 군의 사계절 축제에서 더욱 돋보였다는 평가다.

체험형 이벤트로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고, 축제 현장과 SNS를 연계한 실시간 콘텐츠 홍보는 게시글, 릴스, 숏폼 영상 등으로 빠르게 확산돼 온라인 조회수 수십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 단위 관심도 크게 높였다.

이번 기록은 단순한 축제 성과를 넘어 임실군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관광 실적으로 이어진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심 민 군수는 "5월의 100만명 돌파에 이어 10월에는 129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며 "이는 온·오프라인 홍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누적 천만 관광객 시대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 확대

순창군이 소비자 신뢰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GAP) 확대에 나섰다.

GAP 인증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제도'는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인증 제도다.

군은 신규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해 토양, 용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비와 함께, GAP 인증 심사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GAP 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GAP 인증 절차는 농업인이 위해요소관리계획서와 기본교육 이수증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이 심사를 진행한 뒤 적합 여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증을 받은 일반 농산물의 유효기간은 2년, 인삼류 및 약용작물과 같이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 이상 재배 후 수확하는 품목은 3년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반려견과 함께하는 멍실멍실 가을 산책 운영

임실군이 지난 8일 성수산과 오수반려누리 일대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멍실멍실 가을 산책'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군이 추진 중인 '반려동물 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려견 동반 여행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했으며, 임실군과 전북대 지역혁신센터가 협업해 추진했다.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 가족 15팀이 참여해 △가을 성수산 산책 △오수반려누리 보물찾기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사진 찍기 등 임실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제14회 군민 문화축제 성료

순창군은 지난 7일 장애인체육관에서 '2025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제14회 군민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 동안의 성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 사물놀이 공연으로 힘차게 시작해 감사패 수여, 매운향문학회의 시낭송, 어린이 오카리나·합창 공연, 민요, 색소폰 합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어 난타와 댄스, 파워로빅 공연, 전자현악 4중주와 DJ 춘디의 초청공연은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집중 대응

남원시보건소, 홍보·교육 강화

남원시보건소가 가을철 털진드기 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보건소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예방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보건지(진료)소, 읍면동, 의료기관, 농업기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예방 수칙을 교육·홍보했으며 진드기 예방 물품으로 기피제를 배부하고 산책로 등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6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진드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전에는 풀밭이나 덤불 지역 출입 시 긴팔·긴바지 착용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옷의 끝부분을 양말이나 장화 속에 넣어 진드기 접근을 차단해야 하며, 진드기 기피제를 노출부위나 옷 위에 뿌려 진드기 물림을 예방해야 한다. △야외 활동 중에는 풀밭 위에 직접 앉거나 눕지 말고 돗자리를 사용하고, 옷이나 돗자리에 진드기가 붙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즉시 샤워 및 세탁을 하도록 하고, 귀 뒤, 무릎 뒤, 허리, 사타구니 등 진드기가 잘 붙는 부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 △진드기에게 물렸을 경우, 손이나 핀셋으로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아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구림면, 제1기 주민자치회 출범

순창군 구림면이 지난 7일 구림면 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기 구림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통해 순창군의 두 번째 주민자치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으로 구림면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주민자치 활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조광희 순창부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구림면 주민자치회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위촉식에서는 제1기 구림면 주민자치회 위원 39명이 공식 위촉됐으며, 이어서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최해석(63, 어은동마을) 위원이 초대 구림면 주민자치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구림면은 지난 8월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 접수된 5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39명을 최종 선정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주민 의견 수렴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모색 △주민참여 사업 추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중심의 자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